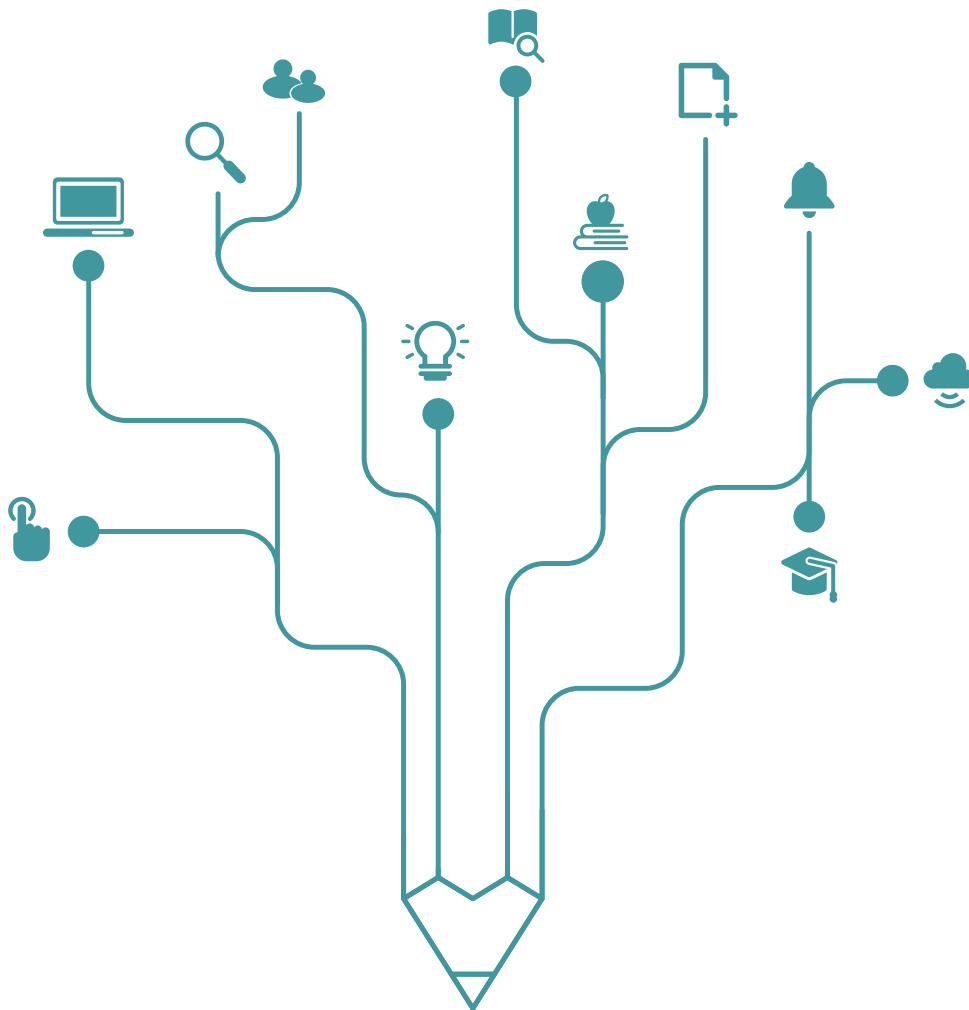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Change during the COVID-19

*Seulki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Bongoh Kye (Kookmin University)*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Change during the COVID-19

Seulki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Bongoh Kye(Kookmin University)

Abstract

How did the thoughts and behaviors of dating, marriage, and childbirth change during the COVID-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VID-19)? This study used “the Survey on Koreans’ set of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in the COVID-19 era” conducted on February 2021, about a year after January 2020, when COVID-19 first occurred in South Korea. The survey period was when strict social distancing in response to COVID-19 was maintained. At that time, the COVID-19 vaccines were developed overseas, but domestic vaccinations have not yet begun.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ffects of COVID-19 on relationship,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ife process. For couples with no children or only one child, "no change" in the relationship was the most common response, while negative responses were more popular than positive ones. Not-yet married couples were more likely to delay their wedding plans rather than advance them. Singles who have not a romantic partner were struggling with the new encount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arriage intention and the birth plan would fall roughly by 10%p

Keywords

Childbirth, COVID-19, Dating, Life Table, Marriage, SMAM,

코로나19 시기의 연애, 결혼, 출산 변동

최슬기(KDI국제정책대학원), 계봉오(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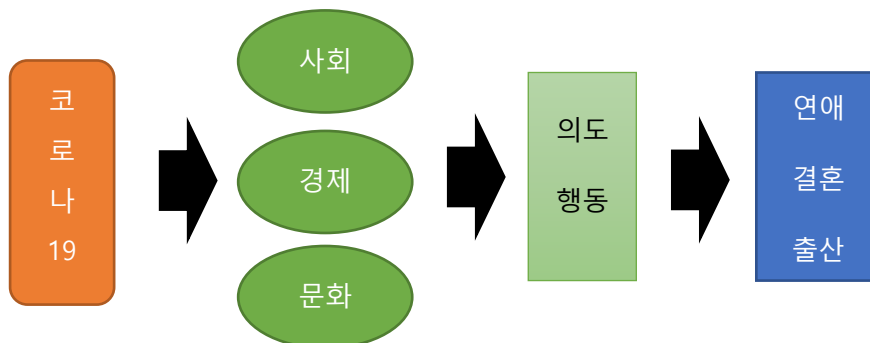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시기에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1월부터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으며, 2020년 2월부터 국내에서 백신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동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1 참조).

과거 사망률이 급증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속에서 출산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출산율의 하락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일 년이 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영향력은 2021년에야 드러난 것으로 예상되었다(최슬기 2020). 2021년 2월 통계청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혼인은 21.6% 감소하였고, 출생아수는 5.7% 감소하였다.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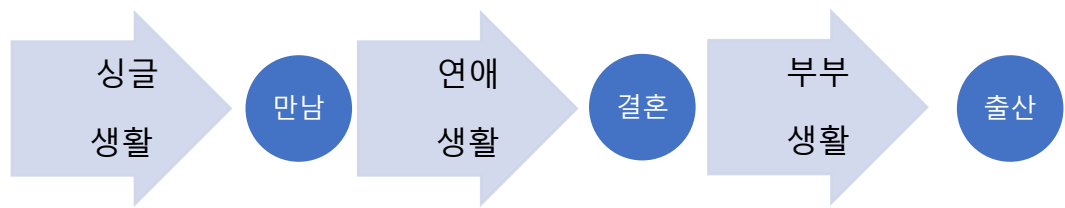
이 연구는 사회, 경제, 문화적 결정 요인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생애과정에서 현상으로 드러난 의도와 행동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가 연애, 결혼, 출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연애 결혼 출산의 의도 및 행동과 그 결정요인들



연애, 결혼, 출산은 단계별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이다¹. 그림2는 이러한 경로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시작은 싱글이었던 두 성인남녀의 만남이다. 만남은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의도적인 이성간의 만남일수도 있고, 일이나 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한 자연스런 만남일수도 있다.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상호간에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면 연애 단계로 접어든다. 연애생활을 하던 중 일부는 결혼을 통해 부부생활로 변모하게 된다².

그림2.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이행 경로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젊은 세대의 만남은 어떠한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라졌는지,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동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추출한 결혼과 출산 이행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해본다.

2.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연애, 결혼, 출산의 변화

2-1.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젊은 세대의 가족 및 결혼가치

¹ 모든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단계적 생애과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결혼없이 출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혼출산처럼 연애와 결혼 두 과정을 모두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² 이 때 결혼은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후 분석에서도 부부생활을 동거 부부와 기혼부부 각각을 따로 다루기로 한다..

관을 주제로 KDI국제정책대학원(조사책임자 최슬기 교수)에서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회 조사이다. 25~49세 한국인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사례수는 2천명인데 성, 연령(5세간격), 지역(17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맞춘 할당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엠브레인 인터넷패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설문 방식으로 조사는 이루어졌다.

필드조사 시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이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약 1년이 지나간 시기이다. 2020년 봄의 1차대유행에 이어, 8월의 2차대유행, 12월의 3차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이었다. 해외에서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아직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이었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조사문항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의도나 행동의 변화를 묻는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한다면, 요즘 귀하의 XXX는 달라졌습니까”라는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2021년 2월초와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전인 2020년 1월 이전, 즉 약 1년이라는 시차를 둔 두 시점을 비교해서 응답자가 생각한 의도나 행동의 변화를 답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2천명 중, 사별 및 이혼을 한 55명을 제외한 1,945명이 분석대상이다. 사별 및 이혼의 경우, 미혼이나 기혼과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생애과정별 조사대상의 분포는 표1과 같다. 기혼자 959명은 자녀수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출산에 대한 의도와 행태 변화는 응답자의 연령이나 출산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없이 출산을 종료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설사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기혼자 생애과정을 세분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연령이나 출산계획의 영향력 차이를 통제하는 효과도 있다.

표1. 생애과정별 조사대상의 분포

유형	미혼, 애인없음	미혼, 연애중	동거중	기혼 자녀0명	기혼 자녀1명	기혼 자녀2명	기혼 자녀3+
전체 1945명	602명	306명	78명	205명	287명	403명	64명

2-2. 희망자녀수 변화

코로나19 이전시기 대비 희망자녀수³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모든 집단에서 대다수는

³ 희망자녀수는 원하는 자녀수를 의미한다. 이는 이상적인 자녀수를 묻는 이상자녀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조사에서 희망자녀수로는 1.61명이 이상자녀수로는 2.05명이 평균값으로 조사되

'변화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애인이 없는 미혼 응답자는 82.6%가 '변화없다'고 답하여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동거중, 자녀가 0명이나 1명인 응답자는 각각 69.2%, 69.8%, 66.9%가 '변화없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희망자녀수 변화를 경험한 비중이 컸다. 변화를 경험한 이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많았다. 애인이 없는 미혼 중에서 '많아졌다'는 1.2%에 그친 반면, '줄어들었다'는 16.2%이었다. 연애중인 미혼에게서는 '많아졌다'는 0.6%이었고 '줄어들었다'는 21.6%이었다. 자녀수를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동거중이나 기혼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분명해졌다. 동거중에서는 3.9%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26.9%는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에서는 자녀수 0명과 1명은 '줄어들었다'가 각각 28.8%와 28.6%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반면에 '많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0.5%와 4.6%에 불과했다. 모든 집단에서 많아졌다라는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줄어들었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더 컸다

표 2. 코로나 19 이전 대비 희망자녀수 변화(명, %)

유형	미혼, 애인없음	미혼, 연애중	동거중	기혼 자녀0명	기혼 자녀1명	기혼 자녀2명	기혼 자녀3+
매우 줄어들었다	8.6	13.4	11.5	17.6	10.1	7.0	10.9
약간 줄어들었다	7.6	9.2	15.4	12.2	18.5	16.6	20.3
변화없다	82.6	76.8	69.2	69.8	66.9	73.7	67.2
약간 많아졌다	0.5	0.3	2.6	0.5	4.2	2.2	0.0
매우 많아졌다	0.7	0.3	1.3	0.0	0.4	0.5	1.6
전체 (사례수)	100% (602명)	100% (306명)	100% (78명)	100% (205명)	100% (287명)	100% (403명)	100% (64명)

2-3. 싱글생활에서의 변화

코로나 19 를 겪으면서 싱글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미혼이며 애인이 없는 602 명 중에 결혼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남성의 60.7%, 여성의 33.6%이었다. 남성은 다수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에, 여성은 다수가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코로나 19 시기 결혼의향의 변화이다. 남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가 7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더 하고 싶어졌다'와 '더 하기 싫어졌다'는 상반된 응답이 각각 10.3%와 10.9%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73.4%로 남성보다 소폭 줄어들었고 '더 하고 싶어졌다'는 5.9%인데, '더 하기 싫어졌다'는 20.7%로 부정적인 응답이

었다.

긍정적인 응답의 4 배 가까이 더 컸다. 미혼 여성에게서 결혼 의향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견된 것이다.

싱글의 삶에서 연애 중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시점에 애인이 없는 미혼들 중에 2020년 2월 코로나 19 확산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소개받는 경험이 있는가 묻는 질문에 78.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약 1년동안 열명 중 두명만 이성을 만나본 경험을 한 것이다. 이 수치가 코로나 19 이전에 대비 변화한 것인지 알기 위해 '코로나 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를 받는 빈도가 달라졌는가'하고 물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변화없다'고 답하였다. '많아졌다'고 답한 경우는 남성은 0.9%, 여성은 0%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여성의 31.7% 남성의 32%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답할 만큼 새로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시기에 새로운 만남이 크게 줄었음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위기상황이 단기간에만 지속된다면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 위기상황은 조사시점에 이미 일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수록 싱글에서 연애생활로, 다시 결혼생활로 나아가는 생애과정의 변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표3. 미혼이며 애인 없음 (유형1, n=602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결혼의향		100.0	100.0	100.0
	하고 싶지 않다	66.4	39.3	51.5
	하고 싶다	33.6	60.7	48.5
이전 대비 결혼의향 변화		100.0	100.0	100.0
	더 하기 싫어졌다	20.7	10.9	15.3
	달라지지 않았다	73.4	78.9	76.4
	더 하고 싶어졌다	5.9	10.3	8.3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이성만남/소개		100.0	100.0	100.0
	없다	78.2	78.0	78.1
	있다	21.8	22.1	21.9
이전 대비 새로운 만남 빈도		100.0	100.0	100.0
	매우 줄어들었다	31.7	32.0	31.9
	약간 줄어들었다	14.8	18.4	16.8
	변화없다	53.5	48.6	50.8
	약간 많아졌다	0.0	0.6	0.33
	매우 많아졌다	0.0	0.3	0.17

2-3. 연애생활에서의 변화

2020년 2월초 연애 중인 사람들은 결혼의향이 어떠했을까? 앞서 연애를 하지 않는 여성의 약 2/3가 '결혼이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에 반하여, 연애중인 여성은 67.3%가 '결혼이 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 비중은 연애중인 남성의 76.4%는 소폭 작은 크기이지만 연애를 하고 있다면 다수는 결혼을 하고 싶어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유행중인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결혼의향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가 68.5%로 다수이었고, '더 하기 싫어졌다'가 19.8%, '더 하고 싶어졌다'가 11.7%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애인이 없는 미혼이랑 비교하자면 부정적인 응답규모는 비슷한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소폭 커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연애중인 남성 응답자들이다. 부정적인 응답자(7.6%)보다 긍정적인 응답자(12.5%)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한다면 애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애를 시작한 32명을 제외한 274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은 78.9%가 '변화없다', 7%는 '좋아졌다'고, 14.1%는 '나빠졌다'고 답하였다. 남성은 74.2%가 '변화없다', 10.6%는 '좋아졌다'고, 13.6%는 '나빠졌다'고 답하였다. 남녀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현재 연애 중인 상대방과 결혼생각을 갖고 있는 153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결혼계획이 달라졌는지 물었을 때, '변화없다'는 65.4%, '앞당길려고 한다'는 7.2%, '미룰 생각이다'는 27.5%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컸다. 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3/4는 애인과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고, 2/3은 결혼계획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달라진 경우에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유형2에 해당하는 연애 중은 상황의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와중에 애인과의 결별한 경우가 늘어났다면, 이들이 해당 유형에서 탈락함으로써 애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4. 미혼이며 연애 중 (유형2, n=306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결혼의향		100.0	100.0	100.0
	하고 싶지 않다	32.7	23.6	28.4
	하고 싶다	67.3	76.4	71.6
이전 대비 결혼의향 변화		100.0	100.0	100.0
	더 하기 싫어졌다	19.8	7.6	14.1
	달라지지 않았다	68.5	79.9	73.9

	더 하고 싶어졌다	11.7	12.5	12.1
이전 대비 애인과의 관계		100.0	100.0	100.0
(코로나19 시기에 연애를 시작한 32명을 제외한 274명 응답)	매우 나빠졌다	1.4	1.5	1.5
	약간 나빠졌다	12.7	13.6	13.1
	변화없다	78.9	74.2	76.6
	약간 좋아졌다	4.9	5.3	5.1
	매우 좋아졌다	2.1	5.3	3.7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계획 변화		100.0	100.0	100.0
(결혼생각을 갖고 있는 153명 응답)	미룰 생각이다	27.2	27.8	27.5
	변화없다	64.2	66.7	65.4
	앞당길려고 한다	8.6	5.6	7.2

2-4. 부부생활에서의 변화

동거 중인 부부의 생활은 어떠한가? 먼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첫 자녀 출산 전에는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었다(여성의 83.4%, 남성의 81%). 그렇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동거를 연애생활과 법적 결혼생활 사이에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거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 19 이전에 대비하여, 여성은 '변화없다'가 7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가 11.1%, '약간 좋아졌다'가 2.8%이었고, '약간 나빠졌다'가 동일하게 13.9%로 강한 긍정이 소폭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52.4%가 '변화없다'고 답하였고, '매우 좋아졌다'가 9.5%, '약간 좋아졌다'가 33.3%이었고, '약간 나빠졌다'는 4.8%에 불과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부부관계는 더 좋아졌다고 나타났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향후 2 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77.8%, 남성은 69.1%로 다수이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낱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2.8%, 남성은 14.3%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긍정적인 응답 규모가 컸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2.8%, 남성이 4.8%가 응답하였고, '덜 낱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16.7%, 남성은 11.9%에 달했다. 여성에게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가 더 두드러졌다.

표5. 동거중 (유형3, n=78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첫자녀 출산전에는 결혼 의향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8	9.5	6.4

	없는 편이다	13.9	9.5	11.5
	약간 있다	41.7	50.0	46.2
	매우 있다	41.7	31.0	35.9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6.75	7.12	6.95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0.0	0.0	0.0
	약간 나빠졌다	13.9	4.8	9.0
	변화없다	72.2	52.4	61.5
	약간 좋아졌다	2.8	33.3	19.2
	매우 좋아졌다	11.1	9.5	10.3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7.8	19.1	23.1
	없는 편이다	25.0	38.1	32.1
	대략적으로 있다	38.9	19.1	28.2
	확실히 있다	2.8	11.9	7.7
	생각해보지 않았다	5.6	11.9	9.0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16.7	11.9	14.1
	시기를 미루기로	2.8	4.8	3.9
	변화없음	77.8	69.1	73.1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2.8	14.3	9.0

기혼이며 아직 자녀를 갖기 전인 부부의 경우(유형4-1)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77.6%, 남성은 79.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8%, 남성은 7.1%이었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9.4%, 남성이 7.1%이었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9.4%, 남성은 4.1%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0.9%, 남성 2.0%로 드물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79.4%, 남성은 84.7%로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낳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없었고, 남성은 2%에 불과했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도 여성은 1.9%, 남성은 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7.5%, 남성이 8.2%가 응답하였고, '덜 낳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11.2%, 남성은 4.1%이었다. 응답자의 4/5 정도는 출산계획에 변화를 갖지 않았지만, 변화한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더 많았다.

표6. 기혼이며 자녀0명 (유형4-1, n=205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7.12	7.43	7.27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0.9	2.0	1.5
	약간 나빠졌다	9.4	4.1	6.8
	변화없다	77.6	79.6	78.5
	약간 좋아졌다	9.4	7.1	8.3
	매우 좋아졌다	2.8	7.1	4.9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28.0	25.5	26.8
	없는 편이다	14.0	9.2	11.7
	대략적으로 있다	22.4	26.5	24.4
	확실히 있다	23.4	29.6	26.3
	생각해보지 않았다	3.7	4.1	3.9
	현재 임신중이다	8.4	5.1	6.8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11.2	4.1	7.8
	시기를 미루기로	7.5	8.2	7.8
	변화없음	79.4	84.7	82.0
	시기를 앞당기기로	1.9	1.0	1.5
	더 낳기로	0.0	2.0	0.1

기혼이며 자녀가 한명인 부부의 경우(유형4-2)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73.6%, 남성은 67.9%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였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4%, 남성은 1.9%로 소수였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8.8%인데, 남성이 16.7%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11.2%, 남성은 11.7%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4%, 남성은 1.85%에 불과했다. 앞서 동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에게서 이러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84.8%, 남성은 81.5%로 다수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방향인 '더 낳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응답은 여성이 3.2%, 남성이 4.3%이었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여성은 0%, 남성은 0.6%로 매우 소수였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방향인 '출산시기를 미루기로 했다'는 여성이 4%, 남성이 3.7%가 응답하였고, '덜 낳거나 포기하기로 했다'가 여성은 8%, 남성은 9.9%에 달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비슷하게

응답자의 4/5 정도는 출산계획에 변화를 갖지 않았지만, 변화한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이 더 많았다.

표7. 기혼이며 자녀1명 (유형4-2, n=287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6.10	6.47	6.31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매우 나빠졌다	4.0	1.85	2.8
	약간 나빠졌다	11.2	11.7	11.5
	변화없다	73.6	67.9	70.4
	약간 좋아졌다	8.8	16.7	13.2
	매우 좋아졌다	2.4	1.9	2.1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전혀 없다	68.8	46.3	56.1
	없는 편이다	12.8	24.1	19.2
	대략적으로 있다	12.8	14.8	13.9
	확실히 있다	3.2	3.7	3.5
	생각해보지 않았다	1.6	8.6	5.6
	현재 임신중이다	0.8	2.5	1.7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8.0	9.9	9.1
	시기를 미루기로	4.0	3.7	3.8
	변화없음	84.8	81.5	82.9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6	0.4
	더 낳기로	3.2	4.3	3.8

기혼이며 자녀가 둘인 부부의 경우(유형4-3)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 없다'가 여성은 74.6%, 남성은 77.7%로 가장 흔했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2.5%, 남성은 2.4%로 소수였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11.2%인데, 남성이 10.2%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8.6%, 남성은 7.8%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3.1%,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로 바뀐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많았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96.5%, 남성은 9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미 2명을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출산계획을 완료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출산을 앞당기거나 늘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0.5%,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여성이 3.1%, 남성이 3.4%로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표8. 기혼이며 자녀2명 (유형4-3, n=403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5.95	6.41	6.19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매우 나빠졌다	3.1	1.9	2.5
	약간 나빠졌다	8.6	7.8	8.2
	변화없다	74.6	77.7	76.2
	약간 좋아졌다	11.2	10.2	10.7
	매우 좋아졌다	2.5	2.4	2.5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전혀 없다	87.8	78.2	82.9
	없는 편이다	8.6	13.1	10.9
	대략적으로 있다	1.0	3.9	2.5
	확실히 있다	0.5	1.0	0.7
	생각해보지 않았다	1.5	3.4	2.5
	현재 임신중이다	0.5	0.5	0.5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3.1	2.9	3.0
	시기를 미루기로	0.0	0.5	0.3
	변화없음	96.5	94.7	95.5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0.5	1.9	1.2

기혼이며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유형 4-4) 부부관계 만족도는 코로나 19 이전에 대비하여, '변화없다'가 여성은 56.8%, 남성은 77.8%이었다. '매우 좋아졌다'는 여성이 10.8%, 남성은 사례가 없었다. '약간 좋아졌다'는 여성이 8.1%, 남성은 18.5%이었다. 이에 반하여 '약간 나빠졌다'는 여성이 16.2%, 남성은 3.7%이었다. "매우 나빠졌다"는 여성 8.1%, 남성은 사례가 없었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다'가 여성은 91.9%, 남성은 9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자녀 2명을 가진 부부와 마찬가지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산을 앞당기거나 늘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여성은 사례가 없었고, 남성은 3.7%에 불과했다.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여성이 8.1%, 남성이 3.7%로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표9. 기혼이며 자녀3명 이상 (유형4-4, n=64명, %)

질문	응답보기	여	남	남녀 합계
부부관계 만족도(1~9점)	평균값	5.78	6.89	6.25
이전 대비 부부관계 만족도		100.0	100.0	100.0
	매우 나빠졌다	8.1	0.0	4.7
	약간 나빠졌다	16.2	3.7	10.9
	변화없다	56.8	77.8	65.6
	약간 좋아졌다	8.1	18.5	12.5
	매우 좋아졌다	10.8	0.0	6.3
향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전혀 없다	81.1	92.6	85.9
	없는 편이다	13.5	3.7	9.4
	대략적으로 있다	0.0	3.7	1.6
	확실히 있다	0.0	0.0	0.0
	생각해보지 않았다	5.4	0.0	3.1
	현재 임신중이다	0.0	0.0	0.0
이전 대비 2년내 출산 계획		100.0	100.0	100.0
	덜 낳거나 포기	5.4	3.7	4.7
	시기를 미루기로	2.7	0.0	1.6
	변화없음	91.9	92.6	92.2
	시기를 앞당기기로	0.0	0.0	0.0
	더 낳기로	0.0	3.7	1.6

3.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혼, 출산의 변화 추정

3-1. 추정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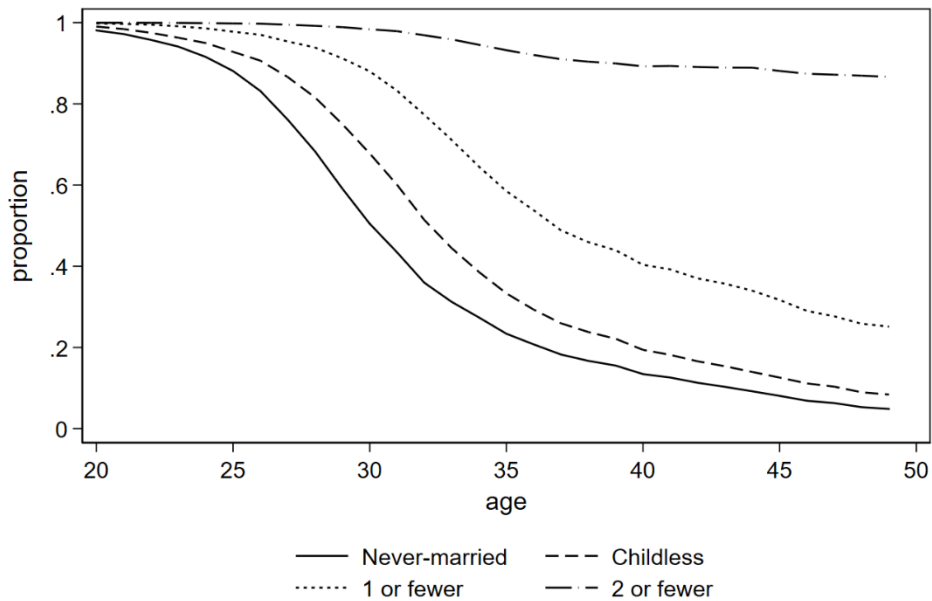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의 하락이 실제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의향의 하락(신윤정 외b 2020)과 결혼 건수의 하락(통계청 2021)은 결혼의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는 결혼 및 출산 이행율의 하락이 생애과정을 통해서 누적되는 효과에 주목하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기준이 되는 결혼 및 출산 스케줄 (baseline marriage and fertility schedule)을 구성하고,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 의향의 변화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 변화를 수치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평균초혼연령(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SMAM)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SMAM은 연령별 미혼자비율의 변화를 활용해서 평균초혼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론은 초혼연령 뿐만 아니라 출산순위별 평균출산 연령을 추정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SMAM은 연령별 초혼이행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조건에서 초혼이행의 우측절단을 고려하면서 평균초혼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SMAM 방식에 따른 추정치는 특정 시점이나 특정 출생코호트의 경험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생산 연령(15-49세)인 코호트들의 과거 경험에 기반하는 기간평균(cross-sectional average)의 속성을 지닌다(Guillot 2003; Kye 2012; Kye 2015). 따라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측정치들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MAM은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추정하는데(권태환/김두섭 2002),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과 더불어 초혼 혹은 특정 순위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추정치(생명표 방식)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연령별 미혼자비율 및 출생아수 분포를 활용해서 SMAM 방식의 초혼연령 및 출생순위별 평균출산 연령을 추정한다. 이 추정치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치(baseline)로 활용하였다.

둘째, <코로나 19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 의향의 변화와 위의 분석결과를 결합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시기 변화를 추정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신윤정 외 2020a), 2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30.0%가 출산한 반면, 2년 이후에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21.6%,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1.1%만이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계획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 결혼 및 출산의향 및 계획의 변화가 실제 결혼이행이나 출산이행되는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체 미혼자 집단에서 결혼의향이 10%p 하락했을 때, 실제 결혼율이 10%p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향이나 계획이 100%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서 결혼율은 10%보다 작은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몇 가지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활용한 추정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시기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의향 변화가 실제 결혼 및 출산연령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 연령별 혼인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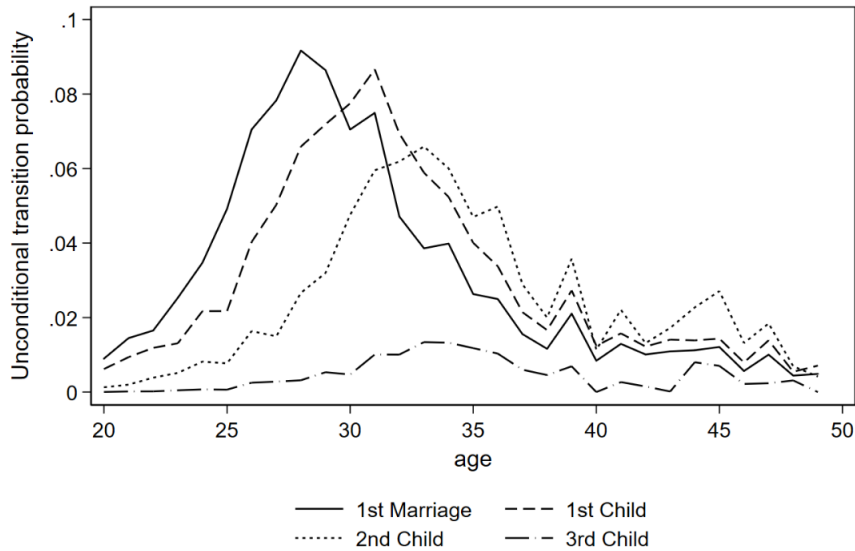
출처: 2015 인구주택총조사

3-2.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준 분포 및 이행확률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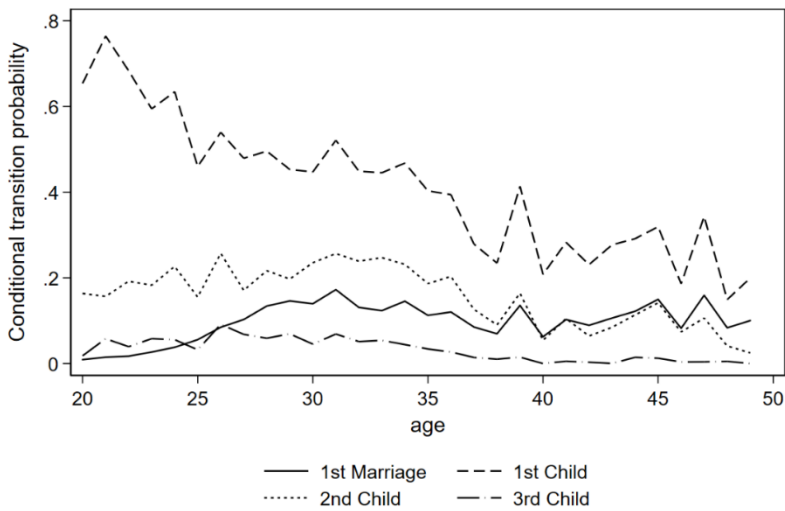
<그림 3>은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한 20-49 세 여성의 미혼자 비율 및 출생아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9 세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비율은 4.9%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자와 결혼 후 무자녀인 여성을 합한 비율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자와 자녀수가 1 명 이하인 여성의 비율은 25.1%, 2 자녀 이하인 여성의 비율은 86.6%로 나타나 자녀수가 2 명인 여성의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결혼 및 출산 패턴을 따르는 가상적인 코호트가 존재한다면 그 코호트의 연령별 결혼 이행확률 및 출산순위별 출산이행 확률은 <그림 4>와 같을 것이다. <그림 4> 상단에 제시된 그래프는 비조건적 이행확률을 보여주는데, 앞선 이행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해당 이행을 경험할 확률을 보여준다. 하단에 제시된 그래프는 직전 이행을 경험한 여성들 중 해당 이행을 경험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결과는 2015 년 현재 한국 여성들의 혼인 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에 기반한 것이며 특정한 시기나 출생 코호트의 결혼 및 출산 스케줄을 보여주지 않는다. SMAM 방식 추정은 이러한 상태 분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이행 패턴을 따르는 가상적인 코호트의 평균 결혼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자료는 코로나 19 로 인한 결혼 및 출산이행률의 하락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4 결혼 이행 및 출산 이행 확률

A. 비조건적 이행 확률



B. 조건적 이행 확률



3-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표 10>은 생명표 방식과 SMAM 방식으로 추정한 평균 초혼연령, 첫째아 및 둘째아 평균 출산연령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표 방식이 SMAM 방식보다 높은 평균연령 추정치를 산출하는데, 이는 SMAM 방식은 49 세까지 해당 이행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표 10>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이행 확률이 모든 연령에서 5-20% 감소했을 때의 추정치를 또한

제공하고 있다. 생명표 방식을 따르면 초혼, 첫째 출산, 둘째 출산으로의 조건부 이행확률이 5-20% 감소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0.3~1.6 세, 첫째 출산의 평균연령은 0.6~2.2 세, 둘째 출산 연령은 0.9~2.9 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MAM 방식의 추정에서는 증가 폭이 이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각 이행율의 하락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이행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

	생명표 방식			SMAM 방식		
	초혼	첫째아	둘째아	초혼	첫째아	둘째아
원자료	31.8	34.0	38.9	30.9	32.6	35.2
5% 하락	32.1	34.6	39.8	31.2	33.1	36.1
10% 하락	32.5	35.1	40.4	31.4	33.4	36.4
15% 하락	32.9	35.7	41.1	31.6	33.7	36.6
20% 하락	33.4	36.2	41.7	31.8	33.9	36.9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표 11>는 출산 완결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49 세 여성의 혼인상태 및 출생아수 분포를 집단 특성별로 보여준다. 이행율의 하락 정도에 따라 모든 상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행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이행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표 11. 원자료 대비 이행률 하락 가정별 49 세 시점 여성 상태 집단 특성별 분포(%)

	원자료	5% 하락	10% 하락	15% 하락	20% 하락
미혼	4.9	5.7	6.7	7.8	9.1
기혼+무자녀	3.5	3.9	4.5	5.3	6.1
기혼+1 자녀	16.7	17.4	19.1	20.8	22.5
기혼+2 자녀	61.5	60.3	58.2	55.8	53.1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앞선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 19 시대,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는 결혼계획과 출산계획이 코로나 19 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미혼자들 중 결혼의사가 부정적으로 바뀐 여성이 긍정적으로 바뀐 여성보다 12.5%p 더 많았으며, 무자녀 여성 중 자녀출산 계획이 부정적으로 바뀐 여성이 긍정적으로 바뀐 여성보다 15.9%p 더 많았고, 한 자녀 여성에서의 변화는 8.8%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결혼의향 및 출산순위별 출산계획이 10%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 및 출산계획의 이러한 하락이 실제

출산에 완전히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출산이행 확률을 10% 정도 하락시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표 10>과 <표 11>에 제시한 10% 하락 시나리오의 추정이 가장 그럴듯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생명표 방식을 따르면, 초혼 연령은 0.7 세, 첫째아 출산 연령은 1.1 세, 둘째아 출산 연령은 0.5 세 정도 상승한다고 할 수 있으며, SMAM 방식을 활용하면 그 수치는 다소 작다. 또한 49 세 현재 미혼율은 1.8%p, 무자녀자 비율은 2.8%p, 한 자녀 이하 여성의 비율은 4.2%p, 두 자녀 이하 여성의 비율은 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의 하락이 실제 혼인력과 출산력의 하락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다소 작은 양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기준이 되는 결혼 및 출산 스케줄은 2015 년의 혼인상태 및 출생아 수 분포로부터 추출했기 때문에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결과가 코로나 19 로 인한 결혼 및 출산 이행률의 하락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 분석은 코로나 19 가 초래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계획 변화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코로나19가 연애,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거나 하나뿐인 부부에 있어 향후 2년내 출산계획은 '변화없음'이 가장 응답이 많았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보다는 아예 출산자녀수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였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계획을 종료한 경우가 많아서인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와중에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소폭이지만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답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코로나19라는 외부에서 주어진 위기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더 단단히 결속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연애중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좋아진 경우보다 더 많았다. 연애중인 커플들은 결혼계획을 앞당기기보다는 미루려는 움직임이 더 많았다. 결혼 의향은 남녀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여성은 '더 하고 싶어졌다'보다 '더 하기 싫어졌다'가 많았고, 남성은 그 반대이었다.

배우자가 있거나, 연애중인 응답자들에게서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현 상황과 그 이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흔한 응답은 '변화없음'이었다. 비록 긍정과 부정 응답을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방향성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다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못

한 싱글들은 새로운 만남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시점에 애인이 없는 싱글들 중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년간 이성교제 소개받거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한 비중은 대략 20%에 불과했다.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전에는 몇%나 이성교제의 교체를 경험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성교제의 만남의 빈도변화를 묻는 응답을 보면 '변화없다'가 절반, '줄어들었다'가 나머지 절반이었다. 만남 결혼 출산이라는 이행 관문의 첫번째 단계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이후 생애과정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행과정상의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보여준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력의 하락이 추정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방법은 기간 평균(cross-sectional average)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결혼 및 출산의 하락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 및 출산의향이 10% 정도 하락했을 때 예상되는 혼인력 및 출산력 하락 정도를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윤정/이명진/전광희/문승현. 2020a.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37

신윤정/임지영/전광희/계봉오. 2020b.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0.

최슬기. 2020.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통계청. 2021. <인구동향조사>.

Guillot, M. 2003. "The Cross-Sectional Average Length of Life (CAF): A Cross-Sectional Mortality Measure that Reflects the Experience of Cohorts" *Population Studies* 57(1): 41-

Kye, Bongoh. 2015. "Cross-sectional average fertility (CAF): Properties and comparison with other measures".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8(3): 113-139.

Kye, Bongoh. 2012. "Cohort effects or period effects?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3): 387-415.